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日) 本紙夕刊十二面

# 荒鷲部隊의猛爆擊
# 南京天地震動
## 地上部隊激戰繼續

【光華門에서十二日發同盟】南側을死守하는 頑敵과激戰中인 富士井、伊佐兩部隊는 砲兵隊의 中山門破壞와 協力하고 一方 脇坂 人見南部隊도 激戰中으로 밤을새이여 午前七時를 지나도록 아직 激戰繼續中이다 午前九時부터 始作한 我荒鷲部隊의 爆擊은 同十時에 亘하야 가장 熾烈을 極하야 南京의 天地를 震撼시키고잇다

社說

## 殺人敎白白 魔黨의斷罪

一

今春 世人의 耳目을 聳動케 한 白白敎의 言語道斷의 殘忍無道한 犯行이 綻露된後 吾人은 累次 人性에 一大汚點을 남긴 이罪惡의 神人共히 容恕치 못할것과 이러한 種類의 類似宗敎의 撲滅의 急務를 論하바잇섯거니와 이제 이魔黨五十名이 檢擧以後 三百日의 取調를마치고 今日로써 送局되어 드듸어 最後斷罪의 審判臺上에 서게 되엇다 當하야 그調書五萬枚 意見書속에 記錄된 그無慘罪狀의 輪廓을 들어볼때에 다시한번 戰慄을 느끼며 人間의 行爲라고는 想像할수업는 畜鬼的殘虐에 몸서리치지안을수업는同時에 世界犯罪史上에도 그例를 보지못할만한 이記錄的事件이 이땅에서 發生된데 對하야 奇異의感과 痛憤의 情을 未禁하는바이다.

二

勿論 人性은 善의一面만이잇는것이아니오 惡의一面도 잇는것이다. 人間社會의 裏面을 더러다보면 古今東西의 別을 저울것업시 詐欺가잇고 恐喝이잇고 强盜이잇고 殺人이잇고 放火等이잇서 何必白白敎에 限한것이리오만은 族과族의 軋轢에依한 種族的鬪爭도 아니며 政治的陰謀를 企圖한 黨爭도 아닌, 아모런 目的도 업고 오직 騙財와享樂을 目的으로 三百餘名의 人命을 殺害하고, 數十萬의 財寶를 빼앗엇다는 事實은 人智가 未開하고 社會가 形成되지아니한 太古면 몰라도 近代의 所謂 文明한 世代에서는 몽수업는想像不到의 事實이다. 그나마 이것은 所謂 安心立命의길을 가르치는 宗敎의 美皮를두르고 今世의 福祿과官爵、來世의往生을 미끼로 無智蒙昧한 百姓을 欺瞞하야 그血汗의 結晶을 빼앗고 그家族을 離散식히고 或은 婦女子를 凌辱하고 그罪惡의 綻露를 두려워하야 殺人暗葬을 함부로 하엿다는것은 可憎의度를 넘어서 人間의 罪惡中에서도 가장 極惡한 罪惡으로 그是非를 論하는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감이잇다 할것이다.

三

이極惡無比한 畜鬼黨의 犯行이 白日下에 暴露되고 예와類似한 迷信宗敎團體에 차례로鐵槌가내리어 이러한種類의 犯罪團體의 沒影과同時에 그犯行의 披根을 보게된것은 實로 痛快不己할일이나 아직도 白白魔黨其他의 斷罪만으로는 吾人의安心을 不許하는바가잇는가한다. 웨그러냐고하면 이 惑世誣民의 徒가 横行하야 그殘虐을 함부로하게된 原因에 一般이 생각하는 一般民衆의 愚昧에만 잇다고할수업기때문이다. 勿論 一般民衆의 敎育普及이 不徹底하야 兇頑한 詐欺黨의 甘言利說에 迷惑하게되는것이 第一의 原因이 되겟지만 아니라, 敎育의普及, 宗敎의淨化, 迷信打破가 가장 緊急한 問題인것은 事實이나 一面으로는 一般民衆이 이러한 類似宗敎에귀依하게되는 [illegible] 苦悶한 生活을하나서 慰安을두려는 方途를 求하고저하는 求願的의心情에서나오는것이니, 이러한 點을생각하면, 社會的現狀을 利用코저하는 惡徒輩의取

가 不足하엿다는것을 如實히 證明하야 [illegible] 大端改에 要求되는同時에 一般 敎育普及以外에도 地方的으로 致가잇슬것이오, 農村生活의 向上化를實行가잇게 民衆의指導方策을 强化하야 農民의現實生活에 더 [illegible]

巧妙한手段에 [illegible] 어다. 이와同時에 一般民衆으로서도 [illegible] 안코 [illegible] 을 가지면 [illegible] 야 家家戶戶 [illegible] 件에비추어 [illegible] 가지도록 [illegible] 할것이다.

명치환

# 南京衛戍司令官
## 防衛戰에關해發表

【上海十一日發同盟】南京衛戍司令官唐生智는 十日來南京防衛戰에 關하야 十一日 午後五時四十五分 左와如히發表하엿다

光華門은激戰한結果 마침내十日午後六時敵軍에게占領되엇다 敵軍의砲擊이 熾烈하야 多數한犧牲者를내엿스나 我將兵의士氣는一層旺盛하다

## 蕪湖殘敵掃蕩完了

【蕪湖十二日同盟特派員發】片岡 小堺 富士井 野副等各部隊는 十日深更까지에 蕪湖附近一帶의殘敵掃蕩을 完了하고 十一日午前九時半蕪湖를 出發하야 京蕪街道를北上하야 ○○로向하야進擊을開始하엿다

## 北支荒鷲部隊 敵敗殘兵을爆擊

【天津十二日發同盟】北支荒鷲部隊는 連日寒風을 冒하며 敵敗殘兵의 爆擊을 行하고잇는데 十一日의 活動狀況은 如左하다

一、島田部隊는 午前十一時 徵城의 敵集團을 殲滅하야 徹底的으로 粉碎、殲滅시켯다

二、島谷部隊는 正午頃 湯陰南方 後李朱 官橋鎭驛을 爆擊하야 敵陣을 潰滅시켯다

三、山瀨部隊는 安國附近의 敵敗殘兵匪部隊를 爆擊하야 四散시켯다

四、柴田部隊及 服部部隊는 曲陽附近의 集團匪賊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 脫退通告는 아직未通達

【주네브十一日發同盟】伊國의脫退通告는 어미聯盟事務局에 通達되엇다고 傳하나 十一日午後二時(日本時間午後十時)까지에는 아무 通告도 오지아넛다 아마 뭇솔리니首相이베네챠宮의 발코니로부터發表한後 通達될것이라고 豫想된다

# 支那軍五萬名이
# 南京城內에籠城

【紐育十一日發同盟】UP南京特派員의 報道에依하면 米國砲艦파네號의錨地前에잇는 防備를施한 製粉工場으로부터 支那兵이 小型汽船을타고 끈칠여시揚子江을往復하고잇는데 支那의一將校가 同特派員에 말한바에依하면 南京城內에는 아직 五萬의 支那兵이 籠居하고잇다한다

## 北支各線의 最近輸送狀態

【天津十一日發同盟】天津의 綿花出廻는 最近一日平均 紡績棉五百俵中 入棉二、三百俵程度로 例年의 十分之一에도 達하지못하고 그他 奧地의 物貨移動도 겨의 絶無로 十二月中旬부터 始作될 各河川의 結氷期를 압두고 京津地方의 邦商은 陸上輸送의 回復을 切望하고잇다 日支當局에서도 이實情에 鑑하야 滿鐵國際運輸等과 連絡을取하야 鐵道及 트럭運輸의 圓滑을圖하는 一方各地의治安維持會와 協力하야 極力自動車道路其他 輸送機關의 復舊新設에努力하기로 되엿는데 昨今의 輸送狀態는 左와如하다

一、北寧線

滿鐵의 協力에依하야 이미全線이 開通되여 天津塘沽間은修理計畫進捗中으로 北寧鐵路局에서는 近近까지를 電車運轉을開始하게될터이다

一、京津線

滿鐵及國際運輸의 손으로 滿州까지 貨物輸送을 開始하엿다

一、京漢線

滿鐵及國際運輸에 依하야 保定、石家莊에로의 貨客이輸送되여 同方面은 治安回復이가장빨낫다 棉花의出廻도 同線이主가된다

一、京綏線

滿鐵에依하야 十一日부터 大同—包頭、大同—口泉鎭間의貨客輸送이 開始되여 輸送能力도漸次回復하고잇다 其他三國輸送은 每日國際運輸、河北運輸公司等에 依하야 此等各線沿線에對하여 開始되엿다

## 皇太子殿下 宮城에御參內

【東京電話同盟】第四回의御誕辰을 直前에두시고 御健康하시게 자라시는 皇太子殿下께서는 十一日午前十時半 赤坂의東宮假御所를 御出門 宮城에參內、길거운 日曜를지나시고 午後三時半 宮城을 御出門、還御하시엿다

# 城壁一角占領을
## 首都陷落으로看做함은尙早
## 上海軍報道班長의 談

【上海十一日發同盟】南京攻擊狀況에 關하야 上海軍報道班長原田中佐는 十一日 次와 如히 말하엿다

昨十日午後五時 脇坂部隊는 南京城의一角 光華門을 占領하게되고 其他의 諸部隊도 各城門에 殺到하야 今朝來盛히 攻擊하는中이나 南京의 城壁은 高十五米 幅十米 그밧게 幅二十米의 水濠及 玄武湖와 如한 湖水로 圍繞되여 잇기때문에 其攻擊은 그리 容易하지아니하다 바야흐로 援中의 軍와 同様인 南京守城軍이 如斯히 頑强한 抵抗을 繼續하는것도 蔣介石이 반드시 自己의 逃避를 遂行에 附하고도 一般의 戰況을 알리지안코 守城軍을 前線으로 모라首都防衛에 決死的 努力을 다햇다는것을 國民에게 鮮明할材料로 삼으려함에 不過하는것이라고 思한다 如何든 南京은 南北二里半、東西一里半의 廣大한 地域이다 城內의 防衛도 相當히 堅備되여잇슬것임으로 一角의 占領으로써 卽時南京城陷落으로 보는것은 尙早이나 皇軍의 威力으로써 攻擊하면 南京을完全占領하고 城頭노피 日章旗를 飜揚할 國民的 感激의날도 각가우리라고思한다

## 팟쇼大評議會

【羅馬十一日發同盟】伊國의 聯盟脫退를 討議할 팟시스트 大評議會는 十一日 午前九時五十五分(日本時間十二日午前五時五十五分)으로부터 베네차宮에서 뭇솔리니首相司會下에 開會되엿는데 商議僅數分으로 脫退를 承認하고 무首相은 十時十四分베네차宮의 발코니에 出現하야 數萬의 群衆을 아페두고 聯盟脫退의 歷史的宣言을 行하엿다 首相은 먼저 我等은 過去二年間忍耐를거듭하여왓스나 팟시스트의鬪爭精神은 이 以上聯盟에 머물러잇슬것을 許하지안는다 고述하고 『그러도 我等은聯盟에 머물것이냐』고 質問하매群衆은『否』라고 答하고 『그러면 脫退할것이냐』고反問하매 群衆은『然하다』고 絶叫하야 베네챠宮前의 廣場은 完全히 興奮의도가니로 化하엿다 當日夜에 안으로 비가 나리기始作하엿슴에不拘하고 大評議會가 開會하기數時間前부터 數萬의 群衆은 베네챠宮前의 廣場에몰려와서 宮殿으로 通하는主要道路는 自動車、馬車通行을 禁止하고 [illegible] 首相의歷史的聲明을 듯기爲하야 招待되엿다한다

# 京蕪街道完全遮斷
# 南京背後衝擊
## 渡江部隊江浦敵擊滅

【富錦十二日發同盟】神出鬼沒로써 勇名을날린 長野、山田兩部隊는 南京의 背後를 찔러 敵을完全히 袋中之鼠로되게하야 南京의 敵은바야흐로 完全히 全滅이냐 降伏이냐의 二途밧게남지안케되엿다

【富錦十二日發同盟】奇襲的揚子江渡河를 敢行한長野、山田兩部隊는 一擧로烏江鎭을 突破하고 다시 追擊을 繼續하야 十二日朝에는 揚子江北岸南京西北方의 江浦城에出現하야 東方으로 潰走中의 敵部隊를擊滅하고 北岸으로부터 南京에잇는敵의北方에의退路는完全히遮斷되엇다

【蕪湖十二日發同盟】片岡、小堺、藤田、富士井等各部隊는 蕪湖占領後도 北進을繼續하고잇는바 江寧鐵路와 京蕪公道에서 南京의 敵退路를 絶斷하고 處處에激烈한 激戰을交하야 徹底的으로敵의 退路를 潰滅四散식키어 敵은 山岳地帶로逃走하고잇다 또 敵一部는最後의 逆襲을하며 揚子江을건너 西北方奧地에 潰走하고잇다 그리고이를 急追하고 我諸部隊는 다시 蕪湖、南京街道를 包圍하고잇다

# 平和에서強力으로
# 米外交政策轉換
## 條約義務遵奉을實力으로要求
## UP通信의觀測內容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의 外交政策은 今日까지 戰爭回避를 主旨로하고 헐國務長官의 所謂 全米平和主義를 堅持하고잇는바 最近의 國際情勢에 依하야 國務省 陸軍省 海軍省部內에 積極强力 外交政策論이 漸次擡頭하고잇다한다 UP通信은 米國外交는 루즈벨트大統領下의 米國의 强力外交로 轉化하는것이아닌가하고 左와如히 觀測하고잇다

國務省當局도 率直히 承認하는것으로써 外交를 補正할것으로보고 海軍은 近近海軍會議以來의 强力한것으로 만들거를 約한 模樣이다 國務長官을 除한 國務、陸軍、海軍三省 當局側에서는 「政府는 斷然히 從來政策을 轉換하게하지안하면아니된다 米國은 從來條約義務의 遵奉을主張하고 今日까지 와젓스므로 今後에 行할것은 他國에 條約義務의 遵奉을 實力으로써 要求할것이다」라고 계한다

## 定期敍勳

【東京電話同盟】

吳鎭司令長官子爵 加藤隆義
第二師團長 岡村寧次
敍勳一等授瑞寶章(各通)
海軍少將 三木太市
陸軍少將 遊佐幸平
文部大臣 侯爵 木戶幸一
企劃院總裁 瀧正雄
京城帝大敎授 藤塚隣
同 高橋亨
敍勳二等 授瑞寶章(各通)
京城帝國大學敎授 大谷勝眞
敍勳三等 授瑞寶章
朝鮮總督府技師 石塚峻
朝鮮總督府鐵道局理事 西崎鶴司
敍勳四等 授瑞寶章(各通)
朝鮮測候技師 澤田次郎治
同遞信副事務官 櫃田周一
總督府視學官 安岡源太郎
總督府事務官 高橋敏
敍勳五等 授瑞寶章(各通)

# 技術、資本을動員
## 獨、日本及新政權과協力

【伯林特派員十一日發同盟】日本軍에 南京의一部를占領하엿다는 報道에對하야 獨逸官民은 日本軍의 神速함에對하야 驚嘆하는同時에 戰爭은一段落을告한것으로보고 滿足하고잇는데 今後發展에 對하야는 相當히 關心을 가저고잇다 獨逸政府의 意向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北、中、南支의 新政權樹立은 自然의勢일것이다 政治經濟中心地域의 政情이 安定함은 希望하는바이나 成立될新政權의 性質如何에 對하야는 獨逸政府는 多大한 關心을 가젓다 그러나 防共政策을 支持하는 原則에 變함이업스나 次期政權의 支持는 特히 經濟提携를 通하야 實現하고심다 獨逸은 技術資本을 總動員하야 日本及 新政權과 協力할 用意를 가젓다

一、日本이 希望하는 日支兩國의 講和는 只今으로서는 希望이 稀薄하다 富分大會戰은 업스나 長期戰을 繼續할可能性이만타 그러나獨逸은防共協定締盟國으로서 支那의 赤化를 防止하기爲하야 協力을不惜한다

一、英國은 支那에잇서서의 地位를 失하고잇는데 蔣政權이 蘇聯邦의 政治的影響下에 설危險을 認識하고 바야흐로 그態度를 反省할것이다

今日本紙四面

## 日曜氣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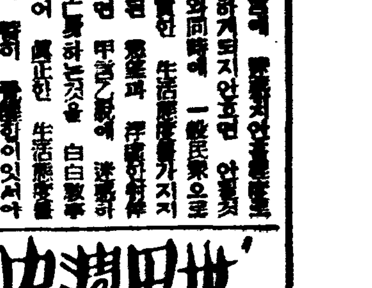
▲期米＝玉整理一巡으로 押目買人氣潜在하나 一般으로新公定米價發表待로 氣配九十五錢으로부터 九十七錢으로 不變이다

▲株式＝新規出一巡하야 利喰으로 下押이나 安値賣物薄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 人事·集會

▲趙鏞周氏 十二月九日午前九時四十五分哈爾濱新安埠安平街三道街四一自宅에서 別世

## 世界週史



### 南京城迫陷落

今週에드러와서 日支事變中가장큰事件은 支那의首都南京城陷落이다 이보다먼저 蘇州、嘉山 廣德各線으로부터 突破한 我軍은 마침내 南京城의 最後의 守備陣인 句容을 突破하고 破竹之勢로 南京에 肉迫하고 또 一部는 宣城을 突破하고 揚子江岸 蕪湖로 進出하야 [illegible]

### 我空軍活躍

[illegible]

### 對支新國策確立

[illegible]

### 北支新政權進展

[illegible]

### 國民政府改造說

南京陷落에 [illegible] 切迫하엿다

### 伊國聯盟脫退通告

伊太利政府는 伊에紛爭以來 [illegible] 今十一日의 伊國의 파시스트大評議會에 招集하고 聯盟脫退를 通告하엿다한다

# 伊太利帝國創設
## 무首相中外에宣言乎

【羅馬十一日發同盟】伊國의聯盟脫退는 [illegible] 相은 마침내 伊太利의 聯盟脫退를決行하게되엿거니와 이에繼續하야 『羅馬帝國』의 第一步를踏出하야 伊太利帝國의創設을 中外에宣言하리라고 觀測된다 右宣言으로 伊太利國에마누엘三世陛下는 正式으로『伊太利皇帝』의 稱號를着御하시고 에디오피아承認問題는 解消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一部에는 뭇솔리니首相의 首相의椅子를 愛婿外相차노伯에게 讓與하고 『베네치아』統領이라는稱號를 總攬하지안을가하는데 眞僞는 不明이다

## 市中異常한興奮
## 무首相聲明待望

【羅馬十一日發同盟】伊國의 聯盟脫退其他重大問題를 討議할 팟시스트大評議會는 十一日午後十時(日本時間十二日前六時)부터 베네차宮에 開會되게되엿는데 羅馬市內의 各處에서는 무首相의 重大發表를 듯기爲하야 群衆이 雲集하야 首相의發表를 기다리고잇서 마치 昨年五月九日의 에디오피아倂合宣言當時의 光景을 呈하엿다

# 伊聯盟脫退는
## 新團體結成의第一步

【巴里十一日發同盟】佛國官邊의 一部에서는 伊太利의聯盟脫退는 獨伊兩國이 防共協定을 基礎로한 聯盟團體를 結成하는 第一步라고보고잇다 南米諸國은 伊太利에追隨하야 聯盟을 脫退하지안을가 念慮하고잇다

## 菅原少佐戰死

【○○電話同盟】十日南京攻略戰에 奮鬪하다가 栗金山에서 壯烈한戰死를遂한 富士井部隊의 菅原少佐는 本年四十一才의勇猛果敢한將校로 長崎縣出身 士官學校第三十二期生 從六位 勳五、功五의武人 大正九年十二月少尉에任官 昭和十二年八月少佐로昇進하엿다

## 人面鏡

◇伊太利政府 十一日 正式으로 聯盟脫退를 通告하엿다고 報。

◇脫退는 말든 事實上 絶緣狀態나 正式으로 脫退하면 對立은 一層 尖銳化。

◇朝鮮通過中의 닉카·폭커氏는 日支事變 뉴스보다 歐洲情勢가 더 注目된다 하얏다지만。

◇大戰의 危機는 歐洲에 먼저잇지 아니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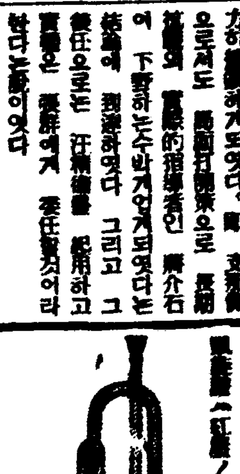
◇佛國下院은 海軍豫算 二十二億法을 通過시켯다하며 英米獨伊蘇는 저와가티 軍備를 擴張中이다。

◇萬一 獨伊對 英佛蘇의 파쇼對 民主主義戰爭이 이러난다면 老狡한英國은 大戰時모양으로 米國을끌어入하는데 成功이 容易할지오。

◇이리되면 戰禍가 極東에까지 빼처지 안흐리라고 保障키困難。

◇世界는 日益 緊迫。 그속의 움직임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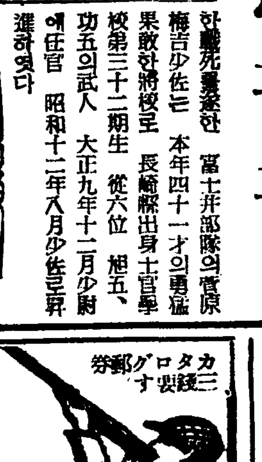

管樂器



紅屋樂器店 大阪市南區日本橋四ノ五四 振替大阪一〇四七二七番 (カタログ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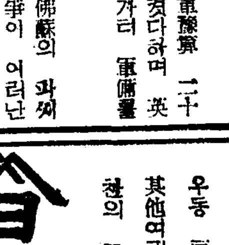
袋物現金問屋 廣島屋本店 大阪市東區 (numbers illegible)

全鮮에서 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 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卸廉價提供 澤井商會製作所 大阪市北區鄕本通四丁目十二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壹二六四番 (新版カタログ進呈) 郵券四錢要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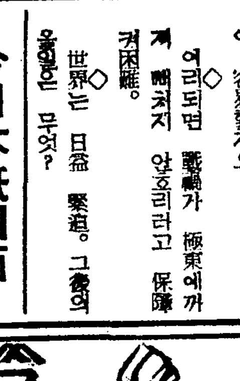


空氣銃 ヤマト商會 高級空氣銃十円以上有円位 少年用貳円以上 大阪市西區北堀江 振替大阪六〇七二番 (カタログ郵券三錢要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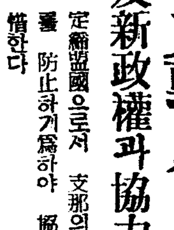
各種 袋物・メガネ・帶皮 優良防感マスク大特賣 島田市商店 大阪市浪速區河原町千日前 電話戎三九八六番 振替大阪六四八二〇番 【カタログ呈】



新 芥子(からし) 밀국수・우동 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山西商店 阿部本店 辻本商店 吉川商店 桑田商店 江口商店 山七商會 重枝商店 小野本店 中村商店 德元商店



新興 番椒粉 類似品이 만히 잇사오니 商標에 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コショ 製造本舖



寶屋式製綿機 全鮮에서 [illegible] 寶屋機械製作所 大阪市西區南堀江通三丁目 電話櫻川一九五二番 (カタログ呈)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八木機械工具合名會社 商店工場ニ限リカタログ呈 電話新町二六〇四番 振替大阪二九一四九番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直輸入商 網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東洋劇場 每夜七時開演 劇團 豪華船 公演

幼年名優 嚴美花孃(當七歲)主演 一幕七場 孤兒 李雲芳作 十四日(모레)밤부터

前週에上演한母性悲劇『어머니의 힘』에出演하야 大人氣大評判으로 有史以來空前의大盛況을일운斯界의名星嚴美花孃! 그는作家李雲芳氏의 最近傑作中 珠玉篇인大悲劇『孤兒』에또다시出演하기로되엿습니다! 名悲劇『孤兒』를놋치지마시고 [illegible]

李瑞求作 三幕四場 물레는純情 十二日(래일)밤까지 (連夜超滿員謝禮)

劇團豪華船의 東洋劇場으로! 今週上演李瑞求作『물레는純情』이 [illegible]

# 萬歲의怒濤 ● 國旗의鯨波

## 南京陷落을祝勝 全市는歡呼一色

### 奉告祭、旗行列、軍隊行進 今日市內의壯觀!

남경함락축하식은 총독부의 지령에따라 십이일 전조선 십삼도에서 일제히 성대히 거행하엿다 이날 낮과 밤으로 통하야 곳을 따라 전승 봉고제(奉告祭) 또는 축하연(祝賀宴) 기행렬(旗行列) 제등행렬(提燈行列)등 각종의 축하식을 거행하엿는데 곳곳마다 우렁찬 만세소리는 도회나 농촌을 물론하고 조선천지에 빼처서 축하기분이 창일하엿다

이날 경성에서도 오전열한시 조선신궁에서 엄숙한 봉고제를 비롯하야 어어서 신궁앞 광장에서 관민이천여명이 모혀 성대한 축하회가잇는 한편으로 룡산부대에서는 보병(步兵)포병(砲兵)공병(工兵)기병(騎兵)대가 장갑차대(裝甲車隊)를 선두로 오전아홉시반 병영을 떠나 시내주요도로를 연선에 도열한 시민들의 열성담긴 환호속에 위의정연하게 행진하엿스며 한편 으로 오후한시반부터 총독부광장을 비롯하야 시내각개소에서 회집한 시내의 각학교아동생도 학생 청년단 방호단 재향군인등 각단체원 십칠만명의 기행렬은 전시내를 편답하야 국기의 물결과 만세의 환호속에 전시는 축승일색으로 물드리고마럿다

## 朝鮮神宮에서 壯嚴한奉告祭

남경함락봉고제(奉告祭)는 이날오전열한시에 조선신궁에서남(南)총독이하 관민약오백명의참렬로 장엄하게 거행하엿는데 남총독 심택(深澤)총사단장 민(閔)중추원고문 윤덕영(尹德榮)후작 조전(篠田)리왕직장관 문관대표 대죽(大竹)내무국장 무관대표구납(久納)조선군참모장 감자(甘蔗)경기도지사 좌백(佐伯)경성부윤등 제씨의 옥관봉전(玉串奉奠)이잇서고 순서에따라 제전을진행하고 동사십분에마첫다

## 官民二千餘名會集 盛大한祝賀式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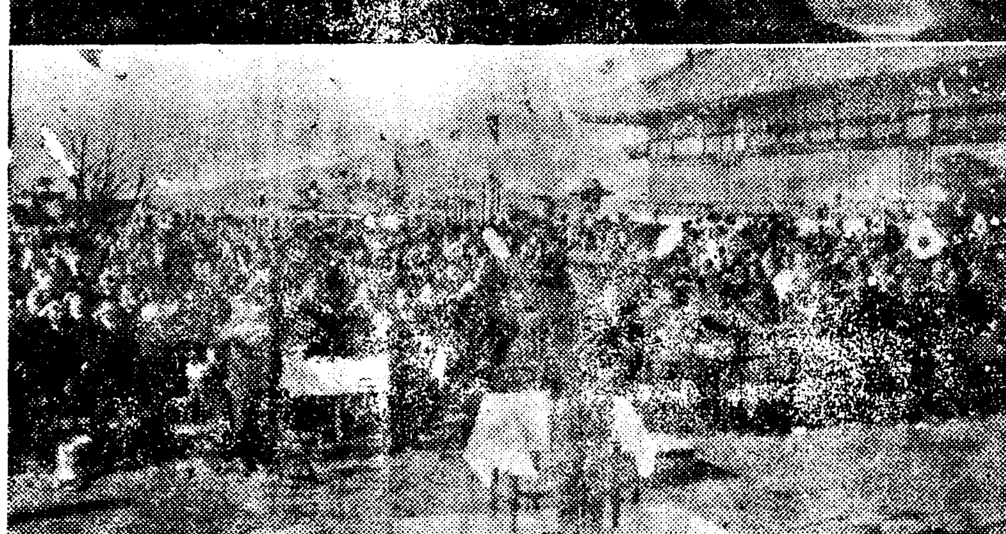
이날정오부터는 조선신궁광장에서 관민이천여명의 참석으로 축하회(祝賀會)를 개최하엿는데 처음에 일제히 황거요배(皇居遙拜)를하고 국가합창을 한다음에 좌백경성부윤으로부터 축사(祝辭)를 랑독하고 어어서 연회를시작하야 축배(祝盃)를 교환하고 남총독의 선창으로만세를 삼창하고서 원만히 축하식을마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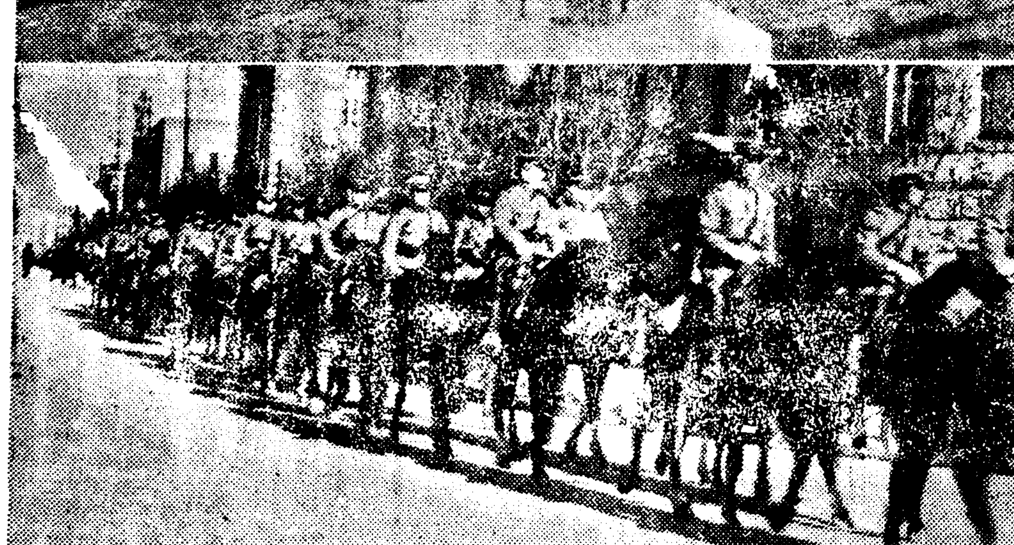
## 龍山部隊市街行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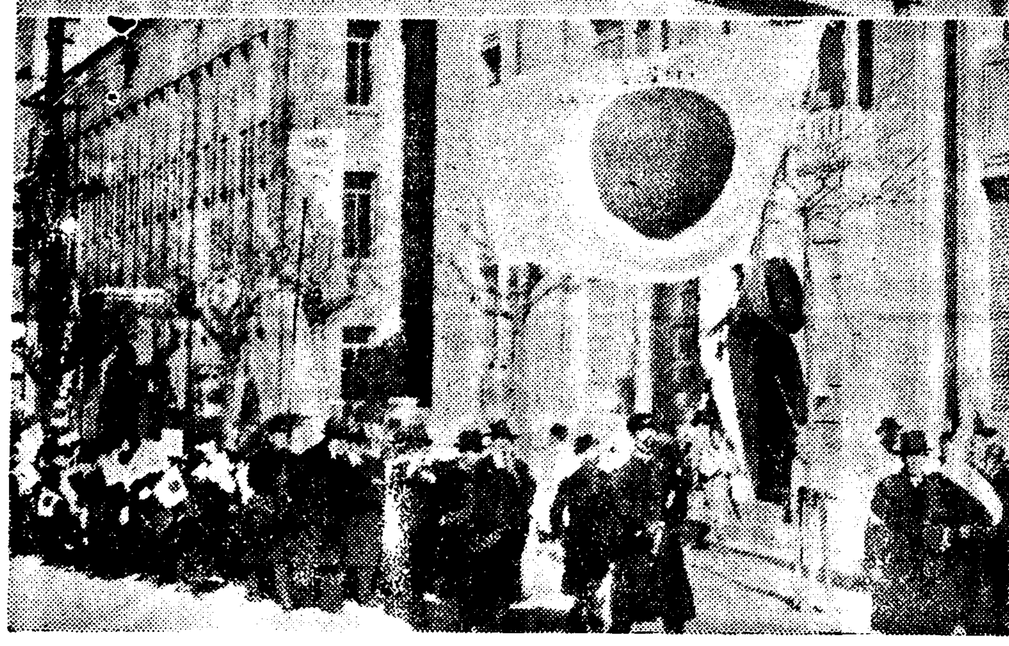
룡산사단사령부에서는 보병(步兵) 기병(騎兵)포병(砲兵) 공병(工兵)및 장갑차대(裝甲車隊)등 수대로써 대오를 편성하야 오전아홉시반부터 남경함락축하의 시가행진을 개시하야 나팔대의 나팔소리에 마초아서 보무(步武)당당히 삼판통(三坂通)으로부터 조선신궁、종로、총독부앞、태평통을 거처서 룡산으로 도라갓는데 이날 이시가행진으로 말미암아 거리에는 한층 더 전승기분을 새롭게하는동시에 연도의 시민들은 이군대의 행렬이저나갈때마다 만세를 찬송하야 한층장관을 보엿다

## 市內大路에氾濫한 十七萬名의旗行列

남경함락 축하기행렬은 이날 생도등 십칠만명의 총동원으로 서부(西部)룡산(龍山)영등포(永登浦) 오후한시반에 부내각단체 학생 동부(東部)남부(南部)북부(北部) 등여섯곳 예정장소에서 정순서에 따라성대히거행하엿는데 십칠만명은각구역마다 룡리총 대로나누어서 나팔대의 선두로 장엄히행진하고 각군데서 만세를삼창하엿다 그리고 이날저녁 다섯시반부터는 학생약일만명을







## 祝賀機는亂舞 삐라二萬餘枚를撒布

신용욱(愼鏞頊)비행사는 이날 강풍을 무릅쓰고 오전에는조선 신궁봉고제식장우에 저공비행(低空飛行)을하야 「황군의 전승을축하」한다는 뜻의 삐라(傳單)를 던지고 오후에는 상공에 날러서 조선군사령부에서발인 축하삐라 이만매를 산포하엿다

## 時計修繕看板걸고 맞는대로賣喫

시계수선업(時計修繕業)의 간판을가지고 시내각처를 도라다니며 부탁받은 손님의 시계를 삼십여개나 횡령해먹은 신안시계사기업자가 십일일새벽에 동대문서에 체포되엿다 그는 원적을 경기도련천군적성면(京畿道漣川郡積城面)에두고 부내삼판통(三坂通) 일백오번지

## 白晝에婦女를掩襲 一瞬·金釵를强奪

### 歲色將暮、暗黑街의斷末相

대목이 점점박해가는때에대 시내에서 금비녀강탈범이 나타낫다 십일일오후두시경해서 시내신설정(新設町)사는 리학봉(李學鳳)(三)이라는 로파가 시내황금정(黃金町)륙정목 천기(川崎)치과의원에서 이를고치고 돌아오는도중에 시내창신정(昌信町)사백륙십이번지 아페 다다럿을 지음 돌연어떤 장한이달려들어 머리에 꼬즌 순금비녀 시가팔십원짜리를 일순간에 빼여 가지고 달아나고말엇다 이급보를 접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년말 경계에 긴장한때이라 즉시범인 수사에 맹렬한활동을 개시하엿다

## 蘆田拂下"스톱"!

### 三千餘名面民의生命線이라고 代表가上京陳情

평남안주군무공면(安州郡無功面) 일대의 하천부지(河川敷地)약팔십정보(町步)를 일전사백칠십일정보를 리권운동자인 개인에게 대부허가(貸付許可)를 하지말고 연고자에게 대부해달라고 칠백여명이 면민을대표로 대표자 박화진(朴華鎭)씨가 십일일에 총독부로 차저가 탄원서(嘆願書)를 제출하엿다 한다

그하천부지는 그면민의 약반수에 달하는 칠백여호의 연간 수입 삼천오백원이 선조때부터 넘래로 피땜을흘려가면서 개간하야온것(蘆草)을 심어서 근년에 이르러서는 일년에수만원 생산액을내는 갈바트로되야 그땅을 생활자원을 삼고잇는터인데 요지음에 신모(申某)라는 사람이일확천금을 꿈꾸고당국에 대부허가원을 제출하고 운동하기때문에 단원인들이 그를압서서 가원을 제출하고 다시 연고가 잇는 증거를 드러 탄원을한것이라한다

## 白白敎犧牲者 慰靈祭는中止

백백교주 고전룡해(全龍海)이하 간부들에게 비참한최후를마친 삼백여명의 생령의죽은 혼백이나마 위로하기위하야 동대문서주최로 오는 십륙일 부내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위령제(慰靈祭)를 거행한다함은 기보한바이나 동서의무들이 한사정에의하야 이행사는 무기연기로 되엿다

## 北支로卷煙洪水

### 朝鮮專賣局製品을大量輸出 今後로는僻地까지

북지(北支)방면에대한 조선연초의매출은 일로이 활로를 전하야나가와 최근전매국에서는 제조건의총준을마치지하야 구체적계획이서립되어 전매국에서는 이미 일원분으로서 금년중에위선 천상자(一千箱子)에한바이천개를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그포장도안도소성을 현지에보내여 그곳 경제가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되엿스며 제이차로는 벽지방면에까지 순응시켜서 적극적진출을 하기로되엿다

## 軍需工業에關한事項調查

### 府産業調査會決定

경부=경성부산업조사회에서는 십일오후에 경성부청회의실에모여서 협의한결과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수공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엿다한다

석정영길(石田榮吉)방에다가 적단전일부터 적송시계점 (赤松時計店)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계수선을 해오는데 그사이에 무허가로 부탁받은손님의시계를 전당잡힌것만해도 십여개로

가량이나되는데 룡산서에서는그 의행방을 탐색하다가 밀경제포 하엿스며 동서에서는 여죄를더 옥취조중이다

경고 또는 부탁받은시계를잡 여개나 파러먹고서 지난시월삼 십일에 어디인지 도망해버렷다 그후 그는 또 동일한 양식으 로 부내돈의정오백십칠번지에다 가 세계수선업이라는 간판을부 치고 부탁받은손님의시계를 드 려오는대로 전당포에 파러먹고 충당키로 전당포에 너허버리 게되엿다 피해액은 전부천여원

## 一等車室內에電話

일본이철도국에서 천기차량회사(川崎車輛會社)에 주문제작중 이든 일등차두대는 요지음완성 되어 부산(釜山)공장에서 정비 중인데 이일등차는 한대에오만원의 호화로운것으로서 전망차로 한사람식걸터안는회전

在鮮中は公私多大の御懇情を辱うし尚今回退鮮に際しては御多忙中態々御見送り被下誠に難有厚く御禮申上候
昭和十二年十二月十一日
加藤敬三郎

## 事變國債買上

### 郵便局에서取扱 價格은十日만에改正

지난번 각우편국소에서 발매 한지나사변의 국채의 매상(買上)을 십일일부터 우편집배사무를 취급하는우편국에서 하게되엿다

매상의한도는 한사람이 한로에 액면오백원까지로하고 그매상가격은 오백원권이 사백팔십구원칠십칠전 백원권이 구십칠원팔십일전 오십원권이 사십팔원칠십이전 이십오원권이 이십사원삼십칠전이다 그리고 그매상가격도 특별히 시가의변동이업는한 대체로열흘만에 개정되게되엿는바 우편국에서는 달리료금을밧지안는다고한다

## 멀정한詐欺漢

### 電氣盜用罰金徵收

이러멀정한 사기한(詐欺漢)에 속지안토록 각가정에서는 특히 조심하시요 부외룩도면 광장리(纛島面廣壯里)송룡운(宋龍雲)(三)이란자는 팔일밤 창신정(昌信町)사백오십구번지 차일동(車日東)의 집에가서 경성전기회사에서왓는데 전기를훔처쓰는 흔적이분명하니 벌금을 내라고 일원오십전을 바다가지고 간뒤이 로부인 구일밤열시경에는 동정 오백삼십륙번지 박순자(朴順子)의 집에가서 가튼수단으로 륙원오십전을 사기한것이 탈로되여 십일밤 동대문서에 검거되엿는데 가튼수법의여죄가 만흔 모양이다

## 龍山署管內에서

### 飴商取締嚴重 贓品故買者數名引致

근래 시국의반영인지 절도 난사건이 빈발하야 룡산서에서는 그들과관계가기픈 엿장사와 엿제조소를 일제수색한결과 십일에 또다시 전선절도혐의자세명을 검거하엿다 그는 부내도화정(桃花町)이백륙십칠번지에사는 엿행상 진성남(陳成男)(二)으로 지난이일오전열한시에 부내엽리정(葉里町)일오칠번지 애오개 동선、주석이판을 룸펜주신남(朱新男)에게서 사드렷스나 경찰의조사로 주신남의행위가 절도행위이라하야 량인을 계속취조중이고 또부내신수정(新水町)이백이십칠번지 장의선(張義善)와 엿집에 서엿행상을하는 리장성(李長城)(二)이도철선 십여근을 어느전공(電工)으로부터 사드렷다하야 룡산서으로 계속조사중이다

사진설명=우로부터 조선신궁서 봉고제、동 축하회、시내의 군대행진、학생들의기행렬

##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方面으로부터 滿鮮으로 퍼지고잇다 本邦方面에 優勢한 低氣壓이 잇고 北海道는 季節風이 좀 强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은 개이고 좀 춥다

昨日最高 一度九
同 最低 零下五度二
今朝最低 零下十一度
今日正午 零下七度四

식의자를 둥근탁자에 배열하엿 스며 룸펀창은 종전의그것보다 배우커서 전망차실이 비상히 밝게되어잇다 그리고 또일이동 차에는 특히 각객실에 전화기 를 가설하도록 배선을 시설한 것이 이번차의 특징이다

## 스포-츠欄

### 普專籠球部 平壤서合宿練習

### 全日本制覇目標

YMCA主催리-그戰에서 宿敵延專을 물리치고 意氣揚揚한 普專籠球部一行은 明春劈頭의東京遠征을압두고 來十八日冬期休暇와同時에 全員이 平壤에 集合하야 合宿하며 崇實體育館에서 十日間猛練習을行하고 二十九日에 歸京하야 三十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渡東할 豫定이라한다 그리고 東京에서의 宿所는 靑山靑年館이라고한다

### 實業卓球戰에 總督府優勝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七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는 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 大學醫學部道場에서 個人戰出場者五十五名과團體戰에 大學、遞信、都俱、道商俱、京城專賣、鷄林、京城、總督府等의八個團體의 入場式이잇서 前年度個人優勝者早渕(總府)君과 團體戰優勝팀 大學俱樂部로부터 各各優勝盃返還式이 끗난後 團體戰으로부터 競技는 열리엇바 決勝戰에드리가 總督府軍이 大學俱樂部軍을 三對零으로 물리치고 優勝하엿스며 個人戰은明日發表할터이다

◇第一回戰
【總府】3—0【京電】
全成鎬 3—0 張政煥
邊龍煥 3—1 趙潤九
李在雨 3—1 崔鍚圭
朴在楠 李仁榮
李東億 金昌源
【大學俱】3—1【遞信】
津村 3—0 李齊林
白井 3—0 鄭鋼植
權島 2—3 石元鋼
庄司 3—0 金鉉玉
全元得 山本
【鷄林】3—1【京專賣】
李德煥 3—2 吳龍基
朴銘德 3—0 李一龍
白龍 0—3 李順乭
趙炳學 秉金相赫
張昌鎬 安順浩
【都俱】…棄權【道商俱】
◇準決勝
【大學俱】3—0【都俱】
津村 3—0 金龍雲
權島 3—0 都龍雲
金元得 3—0 申珖濟
白井 山村
庄司 辻村
【總督府】3—0【鷄林】
邊龍煥 3—0 張昌鎬
全成鎬 3—2 朴銘德
李東億 3—0 趙炳學
李在雨 洪鋼九
朴在楠 李德煥
◇決勝戰
【總督府】3—0【大學俱】
李在雨 3—0 庄司
朴在楠 3—1 全元得
全成鎬 3—1 權島
邊龍煥 津島
李東億 白井

### 運動界人事

◇金明鎬君(明专)은 出律實選征 十二日 本社來訪

性器强大
空氣銃
無說無許可는何人이든지 年中使用 銃明刻印付小年銃五圓 十圓二十圓 松岩商會 振替京城一二七〇〇 京城樓下町

藥 今般藥店大擴張에따라 特히 地方部를 設置하옵고 四方諸位의 命에 應코저하오니 一次試用하소서 …
滿洲國安東市三ノ五ノ一 鮮滿公司地方部

藥劑師招聘 京城黃金町三丁目 合資會社 有一社藥品部

朝報案內

開市 昭和十二年十一月十七日 (陰十一月十五日)
祝 大邱藥令市
閉市 昭和十三年一月三十一日 (陰十二月二十九日)

京城鍾路二丁目七三 ツバメ速達社 電話光七八五番

時勢表進呈
京城府鍾路三丁目十番地 絹綿布商 ㊦ 東順德 電話光化門③三六六番 長一二〇番 振替口座京城一四九四番

絹布綿布 現金都賣 時勢絕對低廉、地方人士歡迎 絹綿布及新柄流行珍品豐富具備

연주창 신발견!! 效力百中 淸化丸 販賣 京城藥房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九

當會副會長松井房治郎殿十二月十日午後六時東京市ニ於テ急逝致候間此段謹告仕候
昭和十二年十二月十一日
朝鮮農會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京城貫鉄町二八(鍾閣後) 電話光二八六番 醫師 李圭晔

器煮汁藥 (新案登錄第32·41·2號)

警鈴付漢藥다리는機械發明

# 農倉雇員임을奇貨로 入庫米를轉賣橫領

## 被害商人의告發로事實綻露

## 大邱署에서犯人逮捕嚴調中

【大邱】 경북도농업창고（慶北道農業倉庫）고원（雇員）홍종한（洪鍾漢）（二三）은 농업창고의 직원임을기화로 입창하려온 상인의백미（白米）를전매횡령하엿다가 판계상인에게 발각고소되야 지난달부터 대구서에서 취조를밧고잇는중 그수단방법이 가장교묘하야 상공은행서부지점（商工銀行西部支店）까지가 피해를 입엇슬뿐아니라, 피해액도 륙천여원（六千餘圓）의 거액에 달하며 사건내용이 복잡하야 의외의방면에까지 확대될것갓다한다 이제 그사기의 수단을들트바에의하면 전기홍고원（洪雇員）은수년전부터 자기처되는 김점수（金點壽）（二□）의명의로 상공은행지점에다가 약간의 예금을 해두고는 항상 잔액이업는소절수로써 농업창고에 가치입창한 판계를가진 상인들을 어업하는수단으로써 물품을 매매하여 나오다하는바 이번경우에는 부내달성정（達城町）달성상회（達城商會）로부터 일백칠십가마니 동 원대동（院垈洞）영진상회（永進商會）로부터 이백오십가마니 경산모씨로부터 약일백오십가마니 총합육천여원의 백미를 박능식（朴能植）이란 중개인을 소개자로하야 매입하겟다는 약속을하고 전기백미를 일단 농업창고에 너케하야 창하증권（倉荷證券）을 발행시켜서는 그증권으로써 자기처되는 전점수의 거래 은행인 상공은행에 할인하야 돈을 자기가 착복해버리고 다시 그물품을 다른곳에 전매하려든차에 전기 매도인（賣渡人）의 한사람인 달성상회（達城商會）로부터 백미대금 일천백원과 사구원의 지불독촉을 밧게되자 평소에 불량해보이든 자기동료의 소절수（小切手）를 발행하므로 이를가지고 곳은행에가보앗스나 과연 부도가됨으로 직시 전기 홍을 차진지 벌서 행방을 감추어 버렷슴으로 그때에야 완전히 사기에 걸렷슴을 확실히 짐작하고 시내원정일정목（元町一丁目）일본내지인료리점 복수헌（福壽軒）에잠복하엿슴을 탐문하고 대구서에고발체포하야 방금취조중이라한다 이외에도 이러한수단으로 횡령한 것이 약일만오천여원에 달한다하며 판계자도상당히 만흔모양으로 의외의 방면에도 사건이 확대될것갓다한다

# 關係商人續續檢擧 事件은擴大될듯

## 農倉當局은帳簿를檢查

별항보도한바, 경북농창 고원 홍종한의사건이 탄로되자농업창고당국에서는 기강（磯岡）주임이하전직원이 총동원하야 새삼스러이 사무와 장부의검사를 엄밀히 하고잇는동 그외에도상당히 이러한수단의매매（賣買）가계속된것갓다하여 피해액도 확실히는 알지못하나상당한 수자에 달하리라는바사건이 큰만치 이에손을 가치한상인는도상당히만허 달성정（達城町）청진상회（淸進商會）주 리봉의（李鳳儀）의 사오관계자가속속다변되엿고 경우에의하야는 경북도내 모유력한 가마니（叺）도매상에 까지도 확대될는지도 모른다한다

### 磯岡農倉主任談

이에대하야 농업창고주임 기강（磯岡）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대단히 미안하게되엿습니다 내가 직접관계한바는 아니라할지라도 내부하중에서 결국이러한 부하를 내엿다는점에 대하야서는 책임을지지안흘수업습니다 피해액 기타는아직말못하겟습니다 그러고 사건이 사직（司直）의손에 매여잇스니 취조에따러 차차아러지겟지요

### 達城商會主 金命煥氏談

우리야 무슨 피해잇슴니까 도당국에서 무러주어도 주겟지요 대출금액 기타 방법에 대하야서는 절대이야기하지못하겟소 운운

### 商工銀行支店長談

이에 대하야 상공은행측에서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결과를 보시면 알겟지요 운운

어런놈이 어데잇소 이바람에 도무지 장사를 못하고잇습니다 그자가 평소에도 그러한 수단으로 거래한 일이 한두번이아니외다 월급밧는사람이 무슨돈이잇서서 그러한 장사를시작하엿는지 모르지요 이번만하드래도 엉뚱한 공권（空券）소절수를주저안하엿습니까

그밧게도, 그자가, 경찰에잡혓슬때 찾고 주임과 송본（松本）모씨만을 만나게해주면 그만한『돈』은 곳나온다고 부르짓는 소리가 도무지 알지못할 공사할이외다 운운

# 市民의反對도一蹴 大田牛市場移轉

## 大田府에서强壓的으로斷行

【大田】 대전우시장（大田牛市場）을 본정이정목으로부터 영정（榮町）삼정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엿스나 현시장편에서 시장과 우시장이 분리하야 잇슴은 절대불가할일이라하야 시민대회까지열고 반대하야 마침내그목적을 달하지못하고 당분간보류하야두엇든것인데 최근대전부에서는 돌연태도를 결정하고 오는 일월일일부터 단연영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이문제는 적어도 시흥대전발전상중대문제로 함부로처리할 문제가 아니라하야 시민중에서 여론이 자못비등하고잇스며 부당국의의견을 드르면 현재의시장은 지리상으로보와 물후에잇서 위생상 조치못하다는것이고 시장측에서는 우시장에만 목을 매고사는 사람이 수백호인데 이들은 사활문제라하야 그귀결은매우주목중이다

# 農校新築基地의 買受價格不一致로

## 公州發展에重大影響波及

【公州】 충남공주읍에잇든 지방법원도 마저이전운동을하야 퍼폐하여진 공주는 갱생책으로써 녀자사범학교설치에 일반시민은전심갈력하야 십만원을 판출하고 명춘개교하기로 희생을 모집하야 개학을 하게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전기 녀자사범학교의위치는 현재의 농업학교로 후보지를 정하고 농업학교는공주시민이판출한 십만원중의 칠만팔천원은 이전비가되여 전기농교이전후보지로 공주금강월편인 동군장기면신관리（同郡長岐面新官里）（지미）로 결정이되여농교기지는 삼만삼천평을 매수하기로 군당국자는 전기토지매평에 사십전으로 오십전까지가격을 사정하고 이래각지주에게토지매매흥정을 진행한결과 전기토지 사만삼천평중 이만팔천평은임의 매수계약을 하엿스나 일만오천평의 토지소유자 심재옥 최병철 민영선 심재욱씨등（公州-）에대한 토지매수가 순조로되지못하야 농교신축공사착수는 지연되어감으로 지난팔일 오전십시경 본도학무과장이 출장하야 지정공주군수이하 당지유지등 십여명이공주군회의소（邑事務所）에 회집하고 토지소유자 심재옥（沈載玉）씨를 초청하야 토지매평의 시가는 오십전이면상당한즉 팔라거나 일원지 가격을정하야 달라거나 종일토록 양방의의사가 합치되지아니하야 그만중지가되얏는데 녀자사범이 농교에서 명춘에개교하는때에는 농교이전으로 교사건축공사착수가 시급한 문제로서 토지매매가 순조로되지아니하야 지연하는것은 불리한문제라고일반여론이가장놉허젓다한다

本報 讀者慰安音樂映畫大會

第五日

今夜午後六時半 本社講堂에서

招待券은 招待日을配定하야 其前日에 進呈함

主催 朝鮮日報社

# 農振委員會開催

【新義州】 평북도에서는 십일오후두시부터 도청고등관식장에서 농촌진흥위원회（農村振興委員會）를열엇는데 심의（審議）급 보고（報告）사항은 다음과갓다

▲審議事項 更生計畫實行年限滿了의部落及農家에對한 措置에關한件 ▲報告事項 農村振興會勵의出張한 出張官의視察報告에關한件

# 天然氷採取願提出

【平壤】 대동강은 얼마전결빙을 보아 스케이터ー들이 활약하고 어름우에 풍성하더니 다시온화한 일기로 벌판을 보게되어 언제 다시 결빙을볼는지 거금에잇서서는 짐작을할수업것만 평양서 위생계에는 십일일에 천연빙채취（天然氷採取）인가원이 제출되여 근일도위생과에 서류를회부하여 다시결빙이되면 검사한후 채취를허하기로되엿다

도위생과에서는 십일부로관내 각지의 천연빙채취업자들에게 되도록 속히허가를 제출하도록 통첩을발하엿섯다

### 地方人事

▲崔相七氏（朝鮮商工新聞社江陵支局長）新任人事次本報江陵支局來訪

長篇小說

# 林巨正 【二】

洪碧初 作 金熊超 畫

### 송악산（二）

청석골 꺽정이패 도중에도 송악산구경을 가고시퍼하는 사람이 한둘이아니엇지만 그중에 배돌석이의안해는 구경을가면 반드시 오래그린동생도 만나보게되고 아비의다리고사는 무당도 상면하게될터이라 기어코가랴고 몸몸달리엇다。대장의허락을 마터내라고 남편을 오륙전가티졸르든중에 그동생이이가 아비와 게모를따라서 송도를오는길에 누의를차저보러왓는데 그아비가기별하기를 경은할 대왕당큰무당의집근처에 사처방까지 말하야노핫스니 내외가치 구경을나오라고하고 또 여러두령대내권과 함께작반하야 나오다면 널직한맛하나를 더번동해보마고하야 배돌석이의 안해는 동생의 얼굴보니 반갑고 아비의 기별들으니 조하서 깡충깡충뛰다시피하얏다。

꺽정이집사랑에 여러두령이모혀안저잇는자리에서 배돌석이가 김억석이의 기별한 사연을 말하고 자기의의견으로 여러두령집 안파식구가 다가치 구경을갓스면조켓다고 말한즉 맨먼저 황천왕동이가 재치잇게

『굿구경하구 떡이나 어더먹을까』

하고 코쌀을 찡머지고 그다음에 곽오주가 심술굿게

『나라여탐굿은 무슨별굿의굿인가』

하고 입귀를 실룩하엿다 그편동행에서 밥을해먹이 구경가는것을 조흐니 그르니 말하는데 꺽정이는 아무소리안코듯지만하더니 남녀중에

『여러집식구가 다간다면 살림이 여간만홀가』

불쾌스러게 말하며 드하야다. 불쾌할것도업는데 불쾌스러게말하는것은 꺽정이의버릇이고 코어운것으로보면 꺽정이도 가고시픈생각이업지안흐나 동행이만흔건 조치안하서 주저하는 모양이엿다. 눈치잘채고 비위잘마치는서림이가 꺽정이를보고

『그러치요 여러집안의 식구가 죄다간다면 사람이 축만슴니까 그러치면 안잠사람두잇구 몸종사람두잇슬테니까 먼저안식구들중에 갈사람이 며치나되나 물어보구 그담에 대장께서 몇분두령을 지정하서서 데리구 가게하면 조치안홀까요』

하고 말하니 꺽정이가 고개를끄덕이엿다.

황천왕동이가 안에 들어가서 대장의명령이라고 뭇설레를떨어서 각집 안식구를 한자리에 모하노코 구경갈생각이 잇나업나 각기 말하라고하얏더니 공연히 전사설물만 늘어노하서한사람식 차례로 가느니안가느나 다저보앗다.

꺽정이의누님 애기어머니는 구경가고시픈맘이 간절하지만 나이보다숙성하야 제법기집아이꼴이박힌애기를 난장한데 다리고 자겨도실코 구경조타는소문을 듯고 자각업시가고자하는 애기를 떼어노코가기도 어려워서 자기까지 고만두고안간다고하고 꺽정이의안해 백손어머니는 태기인지병인지 잘먹지못하고 싱숭싱숭 알는중인데 가겟다고말하야 갈는지부지런다고 애기어머니가타일르고 집에서조섭하는것이조타고 오가마누라가 권하야도 그예간다고 고집을세우고 오가의 마누라는 한편 다리가 불인하야 행보가 어려운까닭에 안간다고하고 리봉학이의소실은 아들아이가 성치안하서 못가겟다고하고 방유복이의안해는 굿에 혹이난사람이라 굿이란건 꿈에도보고십지안타고 안간다고하고 배돌석이의안해는 흑시가지못하게될까 겁을내는사람이니 더 말할것이엿고 황천왕동이 저의안해는 신누님이가게되면 딸하간다고하고 길막봉이의안해도 간다고하고 서림이의안해도 간다고하고 이외에또 [illegible]의안해가간다고하야 안식구의 구경갈사람이 모두여섯이엿다

황천왕동이가 사랑에나와서안식구들의 가고안가는것을 자세히말한즉 꺽정이는 백손어머니의간다는것을 조케여기지아니하야

『너의누님은 가지말라구 일러라』

하고 말하얏다。황천왕동이가

『네』

하고 대답하면 고만일것을

『왜 누님은 가지말라세요』

하고 물어서 꺽정이의비위가 거슬리엇다。

『가서일르라면 일르지 무슨잔소리냐』

『애기어머니하구 오두령부인이 조만이말해두 작구간다구 고집을세우는데 내가말해서 고만둘라구요』

『내말루 일르란말이야』

『그럼 형님이 친히말하시지요』

『내심부름을못하겟단말이냐』

꺽정이의언성이 노파젓다。황천왕동이가 다시안으로들어간뒤에 서림이가 꺽정이의 역증을 눅이랴고

『태기시라구 말들하니 정말태기시라면 근이십년 단산하신끄테 히한한일입니다』

하고 말하야 꺽정이는 서림이를 돌아보며

『태전저 무언지 누가아우 그러치만 잘먹지두안쿠 알코니까 알는사람이 구경이다무어란말이요』

하고 대답하얏다。

『태기시든 병환이시든 좀 행기시는건 해롭지 안흘것이요』

서림이의 두번째말은 꺽정이게 대답안코 한참잇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들어갓다。

內科專門

李承祿內科醫院

平壤府竹典里(신흥) 電話二一七六番

スケート界ノ覇王(キング號スケート)特價提供 カタログ進呈

平壤運動具店

平壤府薛岩里一二八番 電話二三一七番 振替京城四四九七番

ひふ病良薬 テームー水

기비대 毒虫에물린대、발르면아리잔곳、아프잔곳、진득진득하에뜨이잔곳、냄새나잔곳、用法簡單、빨리나어 테ー무水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東京市芝區田村町 大阪市天王寺石辻村 東京藥院

効力本位 ●버짐●옴●음진●무좀●태독●부스름●진부름●대●가려운대●부름●백납●마른버짐●어루러기●비늘●여드름●속은께●동갱이●입술과肛門진부름대●칠●올른대●벼룩、모

平壤新倉里十字路 (電一二八七番)

外科 花柳病科 同仁醫院

院長 張○鎭

入院隨意 夜間診療

世界的發明空氣銃

各種製錄進呈

此發明銃은용ポンプ作用으로發射하는無限한明力이有하야百發百中이다

製叺機 此機는最新改良品을全部作하여械로製로堅固하고使用輕快하다

其他 綿打機 製繩機 扇風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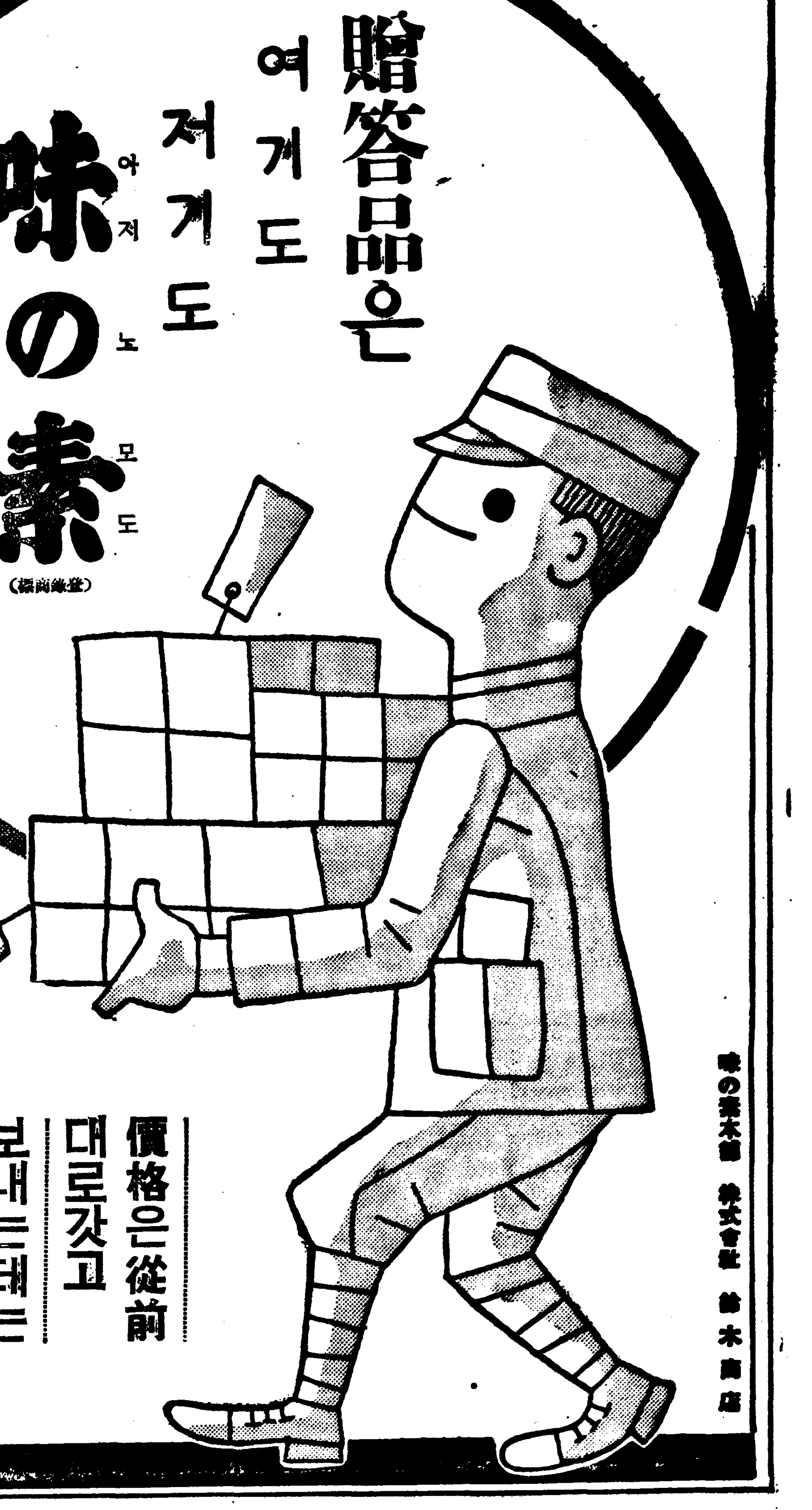
各種農具製作販賣

黃海道載寧邑 合資會社 利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六六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京城堅志洞


贈答品은 여기도 저기도 味の素 化粧函入 (登錄商標)

價格은從前대로갓고 보내는데는 알맛다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2—J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查試驗問題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二〇三〇番 電本②三〇三〇番)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府蓄銀行代理店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松島教正

꼭 낫는다! 肺病必治

無料 (內務省衛生局)肺病의結核에關한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治療法을가르처드리고도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용한療養生活을하려는사람에게

身熱이나리지안는분 不眠症잇는분 기침이꼿치지안는분 每日提療하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胃腸이弱한분 喘息되는분 頭痛나는분 咯血되는분 倦怠症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胸腰痛잇는분 關節炎이잇는분

엇더한重症患者라도失望勿爲

第三期患者도念慮마십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이니는世上에온갓藥과療法에莫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고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바더스나조하질기미는 重病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슴으로全生命을밧처가며모든全快法을研究하엿습니다 研究가허되지안허 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듸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될수잇섯습니다 나에게는 가장有効한 肺病特効藥其他病잇슬當時의實驗談 藥의選擇法 갈븐기침곳치는法略血止滋養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肺病治療秘訣을 一一히懇切叮嚀히無料로 누구에게든지 가르처드립니다 또特殊한 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드립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로의躊躇가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하십시요 一時라도速히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이것도 救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것이오니 아모조록安心하시고間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二三

百頁十錢의"少年"新年特大號는오는十五日全國發賣

모루히네慢性中毒에 福모나ー루 (文獻贈呈)

モルヒネ、ヘロイン、阿片 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 其他麻痺劑藥の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衞商店

惡毒汚血 여러가지病毒을 排泄淸淨히

毒掃丸

二円 三円 五円 十円 廿円 卅円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製

まゆ墨 自然의눈섭!

金鶴 (キンツル)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 南京陷落祝賀 各地에서 盛大히 擧行

【平壤】세계전사에서 일대 광채를발하는 항일의총본영 남경(南京)이 함락되는날 평양부에서는 군관민의총동원하에서 전승대축하회를 거행하기로되여 일체의행사를 십이일중에 다음과 가튼순서로 시행키로되엿다

◆戰勝奉告祭 십이일오전열시 평양신사에서 관민합동전첩봉고제를거행 신사에참배하고 황군의무운장구 국위선양을 기원한다

◆旗行列 부내관공사립학교생도 어린이는 신사에참배하고 장사의기행렬이 시내에행진하게 되엿다

◆祝賀會 오후한시부터 신공회당 (新公會堂)에서 대축하회를열고 축배를들기로되엿다

◆提燈行列 오후 다섯시부터 산수소학교(山手小校)에 각정리단체의대표 관공서관계자가집합 연회를시초로 가두의 대행진을하기로되엿다

【岐陽】 남경함락을축하하기 위하야 지난십일일오후한시반부터 평남기양면민과 기양공보(岐陽公普)생도와신라학교(新羅校)생도가 합동하여 전승축하기행렬을 성대히거행하엿다

【楚山】 전국은 바야흐로 전개되야 호호전개되야 남경함락을 보게되여 초산군(楚山郡)에서는 전승축하준비(戰勝祝賀準備)에분망 중이라한다

## 南京陷落祝電을 新貝知事打電

【光州】 십일일밤 남경함락공보를접하자 전남도신패(新貝)지사는 이백오십만도민을 대표하야 송정(松井)최고지휘관 장곡천(長谷川)사령관등에게 남경함락축전을 발송하는동시에 또는 남총독 소기(小磯)조선군사령관 근위(近衛)수상 삼산(杉山)육상 미내(米內)해상등에게도 전기와가튼 의미의 축전을하엿다

# 傍聽을禁止하고 一部만事實審理

## 次回公判은오는十六日에續開 慶南朝共再建事件公判經過

【釜山】 기보경남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피고 김태영(金泰榮)등 십이명에 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제일회공판은 기보한바와가티지난십일일 오전십일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고목(高木) 다전(多田)양판사배석 송전(松前)검사입회하에 개정되엿는데 피고십이명중 박건석만는불구속으로 정소수(鄭小壽)급 강동수양명만는 병마로말미아마 떠오나고통을당하고잇는듯하얏스나기타의피고들은비교적건강한얼골로 출정하얏스며 방청석도 친척과친지등 이백여명이 드러찬가운데에 지전재판장으로부터 개정을 선언한후에 관공소의 주소성명과 직업연령등을차례로묻는후 다시피고들의 학력 경력등동기타에 대하야 심문이잇슨후 동사이시삼십분경에 재판장으로부터 사실심리는 공안에방해될 우려가잇스므로 방청을금지한다고 선언하야 방청인을 전부퇴장시킨후김태영으로부터 심리를 시작하얏다 일부사실심리를한후 폐정하얏다고한다 그리고 제이회공판은오는 십육일오전열시부터한다한다

# 禿魯江의架橋를 千餘住民陳情

## 江界渭原三面에서

【新義州】 강계전천(江界前川)위원(渭原)대덕(大德)송정(松正)삼면의 면민일천여명은 연서날인하야 위원전천선 (渭原前川線)내독로강(禿魯江)에 가교시설을하야 달라는 진정(陳情)을수일전평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엿는데 진정의내용을대략적어보면 다음과갓다

강계전천(江界前川)면에서 송정(松正)면에이르는 삼산도로로 중간을흐르는독로강(禿魯江)에는아직까지 가교(架橋)의시설이업서 곡물의운반과 교통이 불편하야 지방발전이 되지안흠으로 속히다리를 노아달라는것이라한다

## 兵庫幼稚園의 後援會員慰安會

【神戶】 서신호서구지정 (西神戶西尻池町) 이정목 조선기독교회(朝鮮基督敎會)안에잇는 병고유치원(兵庫幼稚園)은 현원장목사영재향(榮在香)씨가 팔년전에 설립하야 현재원아 오십여명과 칠회나 졸업생을내여 빗나는존재인바 현원사(園舍)가 협착함과 유희장이 업슴을 유감천만으로 느끼든 유지가 후원회를 조직코맹활동을 하여오든바 지난팔일밤필시반에 동교회당에서후원회원오십여명을초대하고위안회(慰安會)를 열엇는데 원장의개회사와 경과보고 봉순상황등을 설명한후 후원회장 리재호(李載昊)씨의 의미심장한 답사는 일반회원을 감격케 하엿다 오래전부터 현양중이든 보모조수(保母助手)도 한명채용키로 만장일치가결한후 즉석에서 이백사십원을 거출하고 다과를차려노코 간담한후 동십시반산회하엿는데 당야의연(義捐)하신분은 다음과갓다

金浩實 五十圓 金活仁 四十圓 李載昊 三十圓 孫南植 三十圓 梁來晚 十圓 梁福奎 十圓 金昌順 十圓 金泰元 劉

# 平南道內各鑛山 杭木飢饉의苦憫

## 道와各鑛山側對策을協議中

【平壤】 산금증산계획에따라 평남도내의 각금산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무연탄 증산계획에 따르는 광부와 항목(杭木)의 수급에는 극히중대시되고잇는데 신조선무연탄회사에서는 광부부족에 대해서는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협의한후 조흔 방책을 수립하려니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그 회사에서 매년 일천오백회차(貨車)이상을 필요로 하는터이며 증산계획에 따라서는 칠천회차의 항목을 수요해야될터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항목은극도로부족하야 곤난을 느끼는터에 증산계획의 진행을 개시할때에는 도저히 공급불가능한 사실은 피키어려워 도당국의 알선으로 칠천정보의 국유림야의불하를 밧고저 방금교섭을 진행중인데 이림야도 현재에 산판작제적도의 축재가 잇슬뿐이므로 즉시 재벌할수없고 되도록 성장이빠른 수목을심어이삼십년후부터 작구적 재벌을계속할수잇도록 영구시설을 하기로할것이나 그것은 먼장래의일이오 그전에 수요할 항목이업서 어정을 모르고잇는상태이다

또 이문제는 유독신조선무연탄회사뿐의 걱정두통이아니라 조선무연탄을 그러고 그밧게 수업시만흔 금산과탄전의 중대문제로 아크로의 해결책이 떠문제시되고잇다

## 鑛夫一名慘死

【安邊】 안변군안변면외 석교리에잇는석교광산(石橋鑛山)의 작업인부암 사사건 그자세한바를들건대 재난팔일오후네시경 안변군안변면외석교리(安邊郡安邊面外石橋里)에 거주하는 동광산광부 최일귀(崔一貴)(三〇)는 항내에서 작업중 낙반으로 흉변을 당하엿는데 즉시 응급수당을 하엿스나효과업시 절명하엿다한다

## 生保事務所主任 背任으로取調

【新義州】 부내 운정정(雲井町)구의통번지 일본생명(日本生命)주식회사신의주사무소 주임 채공준(蔡公準)(三七)(假名)은 소화십년칠월경 정주읍내(定州邑內)리명천(李明天)(假名)과 공모하야 동읍내에거주하는 김제행(金濟行)(二七)이가 중병으로 죽어가는것을알고 보험(保險)에 가입식혀 그후이개월만에죽자 채는수고한의미로오백원을바더먹은사실이 수일전신의주서에 발각되여 방금배임죄로 취조를받는중이라한다

# 咸興公會堂落成

## 工費十五萬圓으로

【咸興】 작년칠월팔일 기공하야 이래일년반의 긴공사를 필하고 어에 준공을보게된공회당 (咸興公會堂)의락성식은 십일일오전열한시부터 그회당에서 관민이 백여명의회집으로 성대히열엇다

이공회당은 그연평 팔백사십구평오합 육작의 삼층양옥의당당한근대식건물로 공비도 십오만원의 거액을 던진것이다 함흥상공회의소 큰가라리1의등의설비를 다하얏스며 집회장소가업는 함흥의 유일한 집회장소로 되얏스며 시가지중앙에서 서일위관을 보이게 되얏다

## 洪原化學工場用地 七割程度買收

【咸興】 홍원에 설치될 동척게(東拓)의대화학공장의 용지매수는 그후에도 착착진척이 되야 십일까지 총매수면적 일천오백십칠만 일백삼십구만이천칠백칠십팔평팔합 가격으로 이백일만칠천이백구십팔원오십구전중 일천일백삼십칠만팔천칠백 오십이평에 일백오십사만칠천사백팔십구원의 평수로는 여미매수 되얏스나 가격으로는 칠할 평수로는 칠할오분이나매수되엿다 이제남은 저진 삼백칠십삼원에 삼십오만 백칠천사백이십육평삼합 가운데는 답은업고 전(田)도 구할가량매수되고 대(垈)가 오만 오천삼백삼이평까지 남기고잇는데 이것은 모두 당청이 전못하지 입으로 용이히 매수에응하지안코잇는데 그매수는 극히난관이 예상된다

## 平北染病激減

【新義州】 평북의 지난십일월중 전염병발생수는 구십여명에달하는데 그중확실이 『장질부사』이어 그리고금년일월이래의 발생수는 구백오십이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야보면 백구십사명의 감소라고한다

## 大德郡廳落成

【大田】 대덕군청(大德郡廳)은도청아래『모던』청사를 신축하고 지난십일일 오후한시부터 락성식을거행하엿다는바 정(鄭)지사이하관민백여명참석하에 정(鄭)군수의식사로 성대히거행하엿다

# 咸南道內에도 叺飢饉深刻

## 12月中廿五萬枚不足

【咸興】 전조선적으로 곡용가마니의 큰기근을보고잇는이때 본래부터 도내에서 생산하지못하고잇는 함남도에서는 더욱혹심한 기근에빠저 정미업자에게치명적타격을주고잇다

도농무과의 조사한바를 보면 십이월중에만 도내에서 수요하여야할 곡용가마니는 어십오만매가량으로 그중 도내에서 현재생산하는것과 생산될가마니는 불과 만매박게업스므로 결국이십오만매는 어데서 구할길이업다고한다 본래부터 함남도의 곡용가마니는 모두 남조선에서 수입하고잇는데 남조선에서 벌서대공황을보이고잇는현상이니만치 함남도가튼곳은 구할생각조차못하고잇다 도내에 잇는정미소는 사십개소나되나 미곡의 반출은 전부 정돈상태에 잇스며 미곡자금도 극히그원활을 일코잇다한다

## 煙草密耕密輸減少

【平壤】 연초의 밀경작과 밀수양도 년년감소되는 경향인데 평양지방전매국판내의 금년일월부터 십일월말일까지의 연초밀경작은 검거(檢擧)사백십이건 현장훈계팔건 합계사백이십건이다 이것을 작년동기에비하면 백이십사건의감소인데 밀수입은현장훈계오천백륙건 검거일천사십오건、합계륙천백오십일건으로이것도 작년보다는 훈계일천백오십오건、검거이백칠십사건의격감을보아 성적이 퍽양호해젓다

## 慶北校長會議서 教育功勞者表彰

【大邱】 명춘사월부터 단행되는 조선교육령 개정을앞두고 지난구일부터 대구제일소학교에서개최중이든 경북도내 초등학교장회의(慶北道內初等學校長會)는 만흔성과를거두고 지난십일일에 끗마첫는대 이회의가끗난후 교육공로자 (教育功勞者)에대한 표창식(表彰式)이잇엇는대 표창된 오씨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咸昌普校 石川好一 達城普校 軒原八十一 平恩普校 李然雨 大邱西部普校 山田立國 迎日普校 松添春元

# 말성잇는永新校

## 結局設立者側에서 社會에讓渡를決議

【參禮】 당지야소교경영의 영신학교(永新學校)는 교회와교장사이에알력으로 십여년전부터 분규에분규를 거듭하야오든중 금년봄부터 각구교경영학교가 신사참배문제(神社參拜問題)로 일제폐교하는 기회를리용하야 교회의 장로들은 계속하겟다고주장하야 교회와교장이 대립되엿다함은 본보에기보하얏거니와 지난구일에 당회(堂會)를열고 교회와설립자측 주장대로사회에양도하기로결의하엿다는데 양도방법은오는 십륙일예학부형과 참례유지(參禮有志)일동을본교로 모하가지고 유지제씨의 공의에 따러 조처할터이라한다

# 長篇小說 濁流 【63】

蔡萬植 作 鄭玄雄 畫

## 千兩萬兩 (10)

고태수라는사람의 얼굴을 알어내고 동시에 그가 이러저러한 속이잇다는짓을 알든그날부터 초봉이의 가슴에는 저도몰으게 동요가 시작되엇섯다。

초봉이가 맨처음 그날 태수의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다가 승재와 버교해서 승재가 그만못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 태수한테 반감이 생긴것 그것이 벌서 열 심상치아니할 시초엿섯다。

그뒤로 늘 태수는 초봉이의 머리속에가서 승재의여메 자악부터가지고는 초봉이가 아무리 눈치를해도 찰거머리갓터 떠러지지를 아니햇다。

초봉이는 승재를 작구만 처켜어치고 싸고돌고해도 그럴수록 태수는 작구만 더 묵어게 파고들엇다。

태수는 마치 색채(色彩)강렬한 꼬치나、독한 향수처럼 초봉이를 사뭇 자극시켯다。초봉어는 눈이 아프고 코속이 아퍼서 그꼬즐 아니볼려고 그향내를 아니마드려고、고개를 살래살래 내저엇스나、큰 운명인정처럼 그것을 피할수가업섯다。

피하재도 피해지지는안코、그래서 그는 밀경 제마음이어 울고십게 짜증이낫섯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오래잔허 서울로 가는날이면 그것도 활활 털어지고、마음 갓든하게지、이러케 밋고 일변 안심도 햇섯다。

그런데 서울을 가지못하게된것도 큰 기빨을 노처 낙심인데 고태수라니!。

그것은 물론 고태수와 결혼을 하라는 그뜻인데、그러나그것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연윗 말이아니라、고태수 그사람의 무서운 유밥이엇섯다。

초봉이는 모친이 말을 못는것도 어저바리고、저혼자서 지금 고태수라는사람이 던지는그물에 올키여 옴닷 하지도못하고、그러고도 방그레니 웃으면서 태수한테 손을내어미는 제자신을 바라보다가 깜바 정신이돌어 몸을 바르르 썬다。

유씨는 딸의 대답을 기대리지안코 어어서

『그사람말이 너를 잘 안다구 그리구 너두 재가를 앎것이라구 그리드란다』

이러케 이애기를 또내놋는데 게봉이가 말허리를 가루라고한마듸참견을한다。

『으응、그사람?……。나두 더러보앗지……。그런데 어찌넘우말숙한것가태? 사람이…』

『내년이 무얼 안다구 주제넘계그래? 잣차부 잇지는안쿠서……。그래 느이 아버지두 그러시구 또내가 보기에두사람이 떡 깨끗하구 똑똑해뵈더라。나이는 올에 스물여섯이구、서울서 멋? 전문대학교를조럽햇다구?』

게봉이는 그냥듯고잇자니까제낫치 간지려워서 견델수가업섯다。

『어머니두! 전문대학교가 어데잇다우? 전문학교면 전문의교구 대학이면 대학교이지』

『이년아、그럼 더노픈 학교게룩구나!』

『어이구 어머니두!호인하기두전에 저레 훌락해가지구— 나는 고런사내 얇밉더란』

『저년이!』

유씨는 돗보기넘어로 눈을흘기는해도 속으로 일변 결리는데가 업지못햇다。

초봉이는 종시 고개를 떠러티리고잇고 유씨는 게봉이한테 흘기든 눈을 그대로 초봉이게로돌려 한번 힐끔 기색을살핀뒤에 다시……。

『태수는 고향이 서울이요 양반의집 과부의외아들이요 재산은 천석추수나하고 지금 은행에 다니는것은 장차 무슨 큰경륜이엇서 일을 배울겸 그리하는것이요 결혼식은 인제 예배당에나 공회당에가서 신식으로할테고 잔치는 돈을 만히드려 요릿집에가서 할테고 우리집이 가난해서 마음은 엇서도 혼인할 염두를 못낸다니까 그런찬허도 혼수며 비용을 전부 재가 네가 대어줄요량을 하고잇단다고하고 그러니 털어노코말이지 지금 이지경이된 우리한테 당자가 그만큼 잘나고 집안이 조코、그밧게 여러가지로 구격이마즌 그런 혼처가 쫄면허 생기기어렵다。그게 다 인연이라는것이다、그래서 느이아버지와 내가 잘 상의를해보고나서 여혼인을하기로 아주 작정을했다、그러니 너도 그리케 알고잇거라、느이아버지는 네의향을 물어보라고하시지만、너도 노상히 그사람을 몰으는배아니니물어보나마나 네맘에도 들울것어다…。』

이러케 유씨는 긴 어애기를 마치고 잠긴숨을 내쉬면서 고개를들어 딸의 기색을 살핀다。

모친의 여러가지 설명으로해서 초봉어의 머리속에 들어잇든 태수의영상은、완구히 뚜렷해가지고 승재의영상을 압박햇다。초봉이는 그것이 안탁가워 몸부림을 치면서

『나두 몰라요!』

라고 푸악이라도 하고시펏다。


# 大木耳鼻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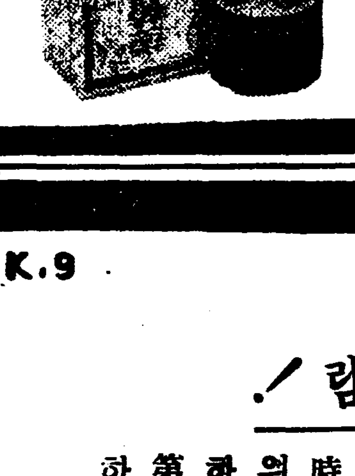
## 家庭에서簡單히 耳鼻疾患이 根治되는藥

치운바람에 문풍지혼드는 요새에는 귀병과코병환자께서는 몹시 고통을 늣기시게되는때에 위험한 중환이되시기전에 하로밧비 大木(오-기)耳鼻藥으로 곳처주서서 根治의깁붐을 엇어주서기 바람니다

本劑는 獨逸의醫藥學大家「포렌주웨르」博士의處方한新藥으로써 家庭에서 簡單히 치료하시사 곰 낫는약입니다

귀젓·耳道炎·귀가아픈때·耳痛·耳內濕疹·耳가다루·귀먹음·急性慢性鼻膜炎·鼻漏·鼻가다루등에특효함니다

廿錢·卅錢·卆錢·一圓 全道藥房에잇습니다



# 마마-푸라스타-

## 아푼 곳에 담결니는곳에 부치면곧나스는

「마마-푸라스타-」는 아푼곳 쑤시는곳 담 결니는곳에 붓이시면 상쾌한계분 여돌며 곰 고통이 개여코 약기운은 그 患部뿐만아니라 病根原에까지 작용하야서 根本的으로 낫는약입니다

**本劑만이 가지고잇는特有의効力**이니 붓인약의효력은 피부를통하야 皮下근육과 혈관에 침투되여서 사람몸의 細胞組織을 更新식히고 피의 순환을旺盛케만들어주는까닭에 그렇게 심하든 苦痛도끝개이고 병근원에까지作用하게됩니다

**한번붓이면藥効가二十四時間持續**하야 藥効를發揮하고잇는까닭에 사람몸의氣孔으로부터 늘약기운이작용하고잇음으로 本劑를 붓이고계시면 늘 거분이 상쾌하고 고통도 곧 개여계되는것입니다

本劑를 어느곳에 붓이시고도 自由로기거동작을하실수잇으며 使用法은 藥劑의表面에붙어잇는 엷은「가-제」를떼어 그대로때 혹은 적당히 짤나서 아푼곳에 붓이시면 되오나 아직 써보시지 못하신분은 宅근저의有名한藥房에서나 직접 東京市神田區鍛冶町 大木合名會社에請求하시는대로 試用藥을 겨저드립니다

약가……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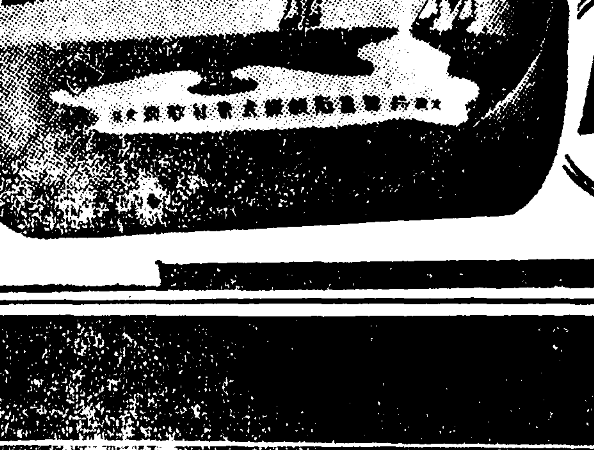
K.9

# 非常時의婦人들께드림!

今也 我國은 緊縮時代입니다 이非常時에適應한 安價로品質優秀한 家庭用牛乳石鹼(十錢)이야말로 非常時婦人의살결의健康을保護하는데 정말 第一品이라고하겟지요!

# 家庭用 牛乳石鹼

年末年始의 御贈答에 家庭用牛乳石鹼



10전

本舖 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東京

# 淋疾이면곳 루-베리

本劑의特徵

一、粘膜으로의吸收가速하고服藥翌朝尿는藍色으로變하야强한리베ー루臭를放散하야排出하고次第로快感을感覺함

一、尿道를侵害하지안는無數한黴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殺菌되고性尿로말미아마體外로洗出하고痛症을消散함

一、藥効를아는대는리베ー루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밧고專門家에게顯微鏡으로比較檢查를해보록하는것이가장速한길이며服藥後날을딸아黴菌의死滅해가는現狀을볼수가잇습니다

警告 自家尿道洗滌又는自家局所療法等은黴菌을도로혀深部에들어가서膀胱가다루를일으키게하는 …

價藥 五日分 七日分 十三日分 廿七日分 一圓 二圓 … 十五圓

到處藥店에서販賣함

大阪市南區大寶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二番